

2011 대학 경기지도자 워크숍

일시 :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11:00 ~ 13:40

장소 : 서울 리베라 호텔 베르사이유홀

주최·주관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장 김한중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해, 하시는 일들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오늘 ‘대학 경기지도자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각 대학 체육위원장님과 경기지도자, 행정실무자, 그리고 체육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작년 6월 8일에 창립총회를 거쳐 발족하여, 벌써 일 년 오 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에는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의 정상적인 정착을 위하여 2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학경기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선수 1,400여 명의 성적표를 진단·분석하였고,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선발하여 시상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스포츠 블로그도 운영하여 대학스포츠 문화를 생성하고 알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선수 개인과 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경기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시행은 대학스포츠 문화를 점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학생선수가 이 리그제 이전보다 수업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고, 여러 팀과 다양한 경기를 치르다보니 자연스럽게 개인과 팀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홈경기 때 재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관람과 응원도 대학스포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각 대학운동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핵심 책임자로서 학생선수들이 훈련이나 실제 대회에서 경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는 지휘자입니다. 또 학생선수들의 스포츠 재능
을 알아내어 더 다듬고 성숙되도록 유도하고 항상 학생선수의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도
갖추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선수와 경기지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은 대학스포츠를 더욱 성숙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협의회는 경기지도자 여러분의 권익환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살
피고 발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지도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위주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수요자이신 여러분께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우리 협의회에 알려주셔서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스포츠가 발전하는 데는 오늘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으로
부터의 “푸르고 향기로운 희망의 노래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희망의 새해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2월 7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장 김 한 중

대학 경기지도자 워크숍

세부 시간	주요 행사	행 사 내 용
11:00 ~ 11:15 (15분)	등록	참석자 등록 및 안내, 자료집 배부
11:15 ~ 11:20 (5분)	인사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김한중 회장
11:20 ~ 11:40 (20분)	주제 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역할과 그간 실적 및 계획 ● 발표 : 연세대학교 조광민 교수 (집행위원장)
11:40 ~ 12:40 (60분)	오찬	
12:40 ~ 13:00 (20분)	주제 2	NCAA의 사례를 통해 본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 코칭 프로그램의 필요성 ● 발표 : 고려대학교 이윤영 박사
13:00 ~ 13:20 (20분)	주제 3	대학경기리그(축구·농구·배구) 참여 학생선수 학업성적 진단분석 ● 발표 : 국민대학교 신승호 교수
13:20 ~ 13:40 (20분)	질의응답	참석자와 주제 발표자 간의 질의 및 답변 방식으로 진행 ● 사회 : 한양대학교 조영호 교수 (한국대학배구연맹회장)

차 례

I. 주제발표 1 0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역할과 그간 실적 및 계획

- 발표 : 조광민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집행위원장)

II. 주제발표 2 17

NCAA의 사례를 통해 본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 코칭 프로그램의 필요성

- 발표 : 이윤영 고려대학교 스포츠사회학 박사

III. 주제발표 3 29

대학경기리그(축구·농구·배구) 참여 학생선수 학업성적 진단분석

- 발표 : 신승호 국민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주 제 발 표 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역할과 그간 실적 및 계획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조 광 민 교수 (집행위원장)**

I. 설립과 그 역할

1. 한국 대학스포츠의 위상

그동안 대학스포츠는 한국스포츠를 이끌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동·하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 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작년,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전체 15개 메달 가운데 대학 선수들이 따낸 메달은 무려 12개에 달한다. 이는 한국스포츠에서 대학스포츠가 차지하는 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학스포츠의 어두운 면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대학교를 비롯하여 각 종목별 연맹이나 협회는 대학 학생선수를 학생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선수로서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지도해왔다. 자연스레, 우수한 경기 결과를 얻어내야만 하는 각 대학교 감독, 코치진들은 학생선수들을 혹사시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다보니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들과 괴리되고, 수업 참여도 아주 소홀해진다. 물론 대학경기대회에서 승리하여 그 대학을 대내외에 잘 홍보하고, 학내 결속력을 다져 결국 대학의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승리지상주의만으로는 대학스포츠의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 대학스포츠의 고유한 가치에 근접하면서 대학스포츠를 발전시켜야 한다.

2. 대학스포츠 관리 기구의 설립

우리나라는 학제 구조상, 대학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한 초·중·고 학원스포츠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되고 학생선수 자원도 자생적으로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프로스포츠에서 활동할 든든한 선수 자원도 원활히 배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지속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튼튼한 대학스포츠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대학스포츠 운영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0년 6월 8일, 전국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들이 모여 대학스포츠의 자율 협의기구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 KUSF)’를 출범시켰다.

대학스포츠를 운영하면서 각 대학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대처하며 풀어나가야 할 사안도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학운동부를 비롯한 대학스포츠에 소요되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관심 사항과 현안에 대하여 몇몇 대학교가 모여 해결 할 수는 없다. 가능한 한 대학운동부를 보유한 여러 대학교의 총장들이 회원으로 참가하여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진정한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공동으로 결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야 한다.

대학스포츠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학생선수, 재학생, 학내구성원, 그리고 대학총장이라고 본다. 이 틀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대학스포츠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스포츠가 나아가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비뚤어졌거나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차 없는 질타가 쏟아질 것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은 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011년 11월 현재, 전국 51개 대학 총장들이 이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대학운동부를 보유한 주요 대학은 대부분 참여했다고 보나, 앞으로 대학운동부를 하나라도 보유한 대학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물론, 선진형 대학스포츠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스포츠 운영 재정을 지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산실인 대학스포츠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되고 발전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의 버팀목 역할을 주도하라는 정책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학스포츠의 주인은 대학이다. 대학은 성숙한 자세로 대학스포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가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협의회 회원 대학 총장들이 대학스포츠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세심하게 챙기고 지도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대학스포츠에 긴요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어느 정도 추동력이 생성되는 선에서 지원을 한다. 결국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협력하면서 우리 대학스포츠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3.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역할

이 협의회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여 스포츠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연구·조정을 하고,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 대학스포츠의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 대학스포츠의 규정 집행 및 감독
- 대학스포츠의 제도 연구, 협의 및 조정
- 대학 학생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아마추어리즘 고양
-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업관리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 대학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대학 학생선수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를 위한 연구 및 소요 자원 조달을 위한 사업
- 대학스포츠 지도자들의 관리·지원 및 학생선수 선발에 관한 사업
- 대학스포츠의 시설, 자료수집, 조사통계 등 스포츠 환경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다.

위에서 언급한 역할은 규범적으로 꼭 해야 할 일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스포츠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선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어떠한 주제라도 다루어야 한다. 대학스포츠는 대학이라는 연구 환경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201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요 실적

1.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의 정상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 이전에는 주로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를 지방에서 장기간 치름에 따라서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이 잦아 학습권 침해 현상이 심했다. 또한,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는 경기 승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구조여서 기량이 뛰어난 선수 위주로 출전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개인 및 팀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학생선수 개개인의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폐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도에,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기본 축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지원 아래 대학축구·농구·배구의 경기 방식이 리그제로 전환된 후, 캠퍼스 내 홈 경기를 치르게 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더불어 팀 내 학생선수가 고르게 출전할 수 있게

되어 학생선수 개개인의 경기능력 향상과 체력관리 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학생선수들과 재학생들 간의 유대감도 놀라보게 좋아지는 등 새로운 대학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 리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에 49억 8천만 원, 2011년에 2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	2011년
공익사업적립금	대학축구리그	2,880,000천 원	1,300,000천 원
	대학농구리그	1,500,000천 원	320,000천 원
	대학배구리그	600,000천 원	420,000천 원
		4,980,000천 원	2,040,000천 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대학경기리그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대학경기리그 참여 학생선수 성적표 진단·분석

대학경기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선수는 2011년 5월 기준, 2,700여 명 이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학업성적을 파악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경우는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 참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적표를 진단·분석하여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2011년 1월 24일 이사회에서 학생선수 성적표 제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고, 4월 28일까지 전국 56개 대학에서 2·3·4학년 1,411명(축구 1,186, 농구 125, 배구 100)의 성적표를 제출받았다.

이를 국민대 스포츠마케팅 연구실 신승호 교수 팀에 진단·분석 의뢰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선수 평점 평균은 2.671 수준으로 낮았으며, 특히 교양과목이 전공과목보다 성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양과목이 체육 전공과목에 비해 학습 적응력 면에서 그 수준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인 56개 대학 중 24개 대학은 F학점을 받은 학생선수가 없었으며, 전체 평점 평균이 2.1 수준임에도 F학점이 미발생한 일부 대학이나 체육특기생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F학점이 미 발생한 대학의 경우,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체 대상의 64%(904명)를 차지하는 중·소도시 대학 학생선수의 평점 평균은 서울·광역시 대학 학생선수의 평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경우는 비교적 학점 관리가 유리한 환경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번 학생선수 성적 전수 조사는 대학운동부 설치 이래로 처음 있는 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사 결과를 교과부와 문체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와 연동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올해 초등 6학년이 고등 3학년이 되는 2017년에는 학생선수 최저학력 수준이 60%로 격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협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명실 공히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양성하여 선진형 대학스포츠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

3. 2011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

그간 경기성적이 우수한 학생선수에 대한 시상은 많았으나,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학업성적과 경기성적 모두가 우수한 학생선수에 대한 시상은 없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51개 회원 대학의 리그 참여 운동부 소속의 학생선수 중 공부와 운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수한 학업성적과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추고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 다른 학생선수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자를 선발·시상하였다.

2011년 11월, 학생선수의 2011년 1학기 말까지의 전(全)학년 성적과 소속 대학의 총장 추천서를 제출 받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학축구·농구·배구 종목별 최우수 1인, 우수 2인씩 총 9인의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 2011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최우수 학생선수로 호남대 김형록(축구), 고려대 노승준(농구), 경희대 진성태(배구)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학생선수로 동국대 최명희와 충북대 손승현(이하 축구), 연세대 김승원과 경희대 박래훈(이하 농구), 경희대 최홍석과 명지대 김민제(이하 배구)가 선정되었다. 수상의 영광을 누린 이들은 201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여 협의회 회장 명의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최우수 학생선수는 200만원, 우수 학생선수는 100만원의 상금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도 우수한 학업성과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춘 숨은 모범 학생선수의 발굴과 함께 매년 정규 시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힘 쓸 예정이다.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
최우수	김형록 (호남대 4학년)	노승준 (고려대 4학년)	진성태 (경희대 1학년)
우수	최명희 (동국대 3학년)	김승원 (연세대 4학년)	최홍석 (경기대 4학년)
	손승현 (충북대 3학년)	박래훈 (경희대 4학년)	김민제 (명지대 3학년)

4. 대학 체육특기자(농구·배구)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 서명 추진

그동안 대학 체육특기자의 금전 스카우트라는 불미스런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금전 스카우트는 그 특성상 과열과 부정한 방법이 은연 중 스며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 협의회는 2011년 2월 집행위원회에서 과열과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는 대학 체육특기자의 금전 스카우트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결의하였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7월, 협의회 집행위원회에서 대학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안) 및 대학 체육특기자 스카우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보고서(안)을 마련하였다. 대학운동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대학의 체육위원장과

감독 및 코치가 서약서와 서면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아, 올 8월, 2회에 걸쳐 농구·배구 보유 대학 체육위원장 및 감독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월, 협의회 집행위원회에서 서약서와 서면보고서 최종안을 의결하였으며, 이 내용에 대해 대학 체육위원장, 감독 및 코치가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1년 11월, 마침내 서약서와 서면보고서 최종안이 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스포츠를 견인하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대학 체육특기자의 금전을 통한 스카우트 근절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서약서에는 ▲대학운동부(농구·배구)의 체육특기자를 선발함에 있어 금전을 통한 스카우트를 하지 않고, ▲스카우트 대상 체육특기자에게 직접적 또는 소속 대학 동문·교우 관련 단체, 체육위원회 및 이와 연관된 모든 조직·단체를 통한 방법으로 금전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소속 대학교 총장에게 선수 선발 관련 내용을 진실하게 서면보고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약서 및 서면보고서는 2013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해당되며, 서약 주체는 해당 대학의 체육위원장, 감독 및 코치로 되어 있다.

5. 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자격 요건 개정 요청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대한축구협회는 2009년부터 초·중·고 축구 리그제를 주말과 방과 후에 운영하여 운동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고자 매진하고 있다. 그간 대학에서도 축구 리그제를 시행한 결과, 종전 전국대회 방식과 달리 개인과 팀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등이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축구 발전과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초·중·고 축구 리그제와 대학 축구 리그제가 동반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지원 자격 요건에 고교 축구리그에 출전한 기록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대한축구협회 등에서 요청한 ‘2013학년도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지원 자격 요건 개정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집행위원회의 관련 안건 협의 및 대한축구협회와의 연석회의 등 세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최종 의결하였다.

대상 기관은 협의회 회원 대학 중, 대학축구리그에 참여하는 46개 대학이며, 11월에 이들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2013년도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시 요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2013학년도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지원 자격 요건 개정 요청 내용’은 ▲리그대회에 출전한 개인 기록을 축구 체육특기자 선발 지원 자격 요건에 적용, ▲리그대회 팀 성적 적용 배제, ▲고교 2학년 재학 중 리그대회 30% 이상 출전 기록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입학 지원 자격 요건 신설로 우수 학생선수가 고교 3학년 때 부상으로 입학 지원 자격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고려, ▲고교 1학년 재학 중 리그대회 출전 기록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입학 지원 자격 요건은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 ▲리그대회 개인 출전 기록과 전국대회 팀 성적 동시 적용 금지, ▲클럽 축구팀 출신의 고교 졸업 예정자가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원 축구부 출신과 동등한 기준으로 선발 등이다.

6.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사업 대행 계약

우리 협의회는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재정적인 자립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 마케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규모는 작지만, 2011년 3월 24일, 우선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주체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 협의회·한국대학농구연맹과 (주)IB 스포츠이며,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마케팅 사업 대행 사항은 공식후원사, 협찬사 유치 등의 스폰서십 판매, A-보드 및 경기장 내외의 광고 판매, 미디어 방송 중계권 판매, 경기 입장권 판매,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 사업, 경기 기록실을 이용한 마케팅 사업, 그 밖에 각종 마케팅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2억 5천만 원씩 4년 간 총 10억 원의 선지급 개런티를 받게 되며, 매년 마케팅 대행으로 얻은 수입액이 선지급 개런티인 2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갑)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한국대학농구연맹 70% : (을)(주)IB 스포츠 3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대학농구리그는 (주)KB 금융지주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여 대회명칭은 'KB 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2011'로 명명되었다.

7. 대학농구리그 주관 방송 약정서 체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한국방송공사(KBS)는 대학농구리그의 주관 방송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 기간은 2011년 3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대학농구리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상호 권리·의무 관계 및 협력사항을 명확히 정한 약정서에는 대학농구리그의 공중 송신권 및 저작권은 KBS에 있으며, KBS는 경기 중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취재 보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농구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다. 협의회는 중계방송 횟수 보장 조건으로 제작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KBS는 1차리그 7회, 2차리그 6회의 중계방송을 하였다.

8.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자립적인 재정 구조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한국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송재기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의 개발, 수익 창출 후 각 대학·경기연맹·협회 간의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 기간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6개월이며, 용역비는 3천 5백만 원이다. 8월 대학스포츠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9월 관련 프리젠테이션 중간보고를 거쳐 12월 중순 최종보고 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9. ‘대학스포츠 블로그’ 운영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회는 블로그의 강점인 검색을 통한 전파력을 활용, 대학스포츠 관련 주제를 대학생과 대학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학스포츠 현안과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학스포츠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이 매월 초에 기획회의를 거쳐 그달 말까지 2건 이상의 기획취재 기사를 제출한다. 9월 1일 개설 이후, 11월 말 현재 100여 건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주제 범위는 대학경기리그 현장 소식, 학생선수 학습권 정보, 대학스포츠 동아리, 대학스포츠 시설 탐방, 대학스포츠 마케팅 및 홍보, 대학스포츠 지도자 및 학생선수 심층 인터뷰 등이다.

10. 협의회 소식지 ‘대학스포츠 제1호’ 발간·배포

우리 협회회의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여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협의회 일반 소개, 그간 협회회의 주요 활동, 2011년 하반기 주요 업무, 대학경기리그 소식과 회원대학의 총장 동정 등을 담은 협의회 소식지 ‘대학스포츠 제 1호’를 2011년 6월 발간 및 배포하였다. 51개 회원대학, 105개 비회원대학, 83개 유관기관, 22개 주요

언론사, 문체부 등에 1,000여부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신규로 개발한 소식지의 표지 디자인 포맷을 적용, 1년 2회 정기 발간할 예정이다.

11. 각 언론사 체육부장 및 농구·배구 전담 기자 간담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협의회 출범 일년에 즈음하여 대학경기 리그제 운영과 협의회 현안을 설명하고자, 주요 언론사 체육부장 및 농구·배구 전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총 3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7월 말 개최한 언론사 체육 부장 간담회 시에는 협의회 김한중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이 협의회 역할 및 대학스포츠의 중요성과 보도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각 언론사는 대학스포츠 보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연합뉴스는 우리 협의회 출입 전담 기자를 지정하여, 대학스포츠를 널리 보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언론사 체육 부장	농구 전담 기자	배구 전담 기자
일시	2011. 7. 27.(수)	2011. 8. 16.(화)	2011. 8. 18.(목)
장소	달개비	달개비	달개비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 김한중 회장, 조광민 집행위원장 등 8인 • 언론사 : 박세진 연합뉴스 부장 등 1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 조광민 집행위원장, 모창배 위원 등 9인 • 언론사 : 최태용 연합뉴스 기자 등 1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 조광민 집행위원장, 조영호 위원 등 9인 • 언론사 : 고진현 스포츠서울 기자 등 10인
배포 자료	협의회 주요 업무 보고, 대학스포츠, SPORTS KU, SIS-BOOM-BAH	협의회 주요 업무 보고, 대학스포츠, SPORTS KU, SIS-BOOM-BAH	협의회 주요 업무 보고, 대학스포츠, SPORTS KU, SIS-BOOM-BAH

Ⅲ. 2012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요 계획

1. 2012 대학경기리그제 운영 지원

우리 협의회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정상적인 조기 정착을 실현하고, 대학경기의 다른 종목이 리그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며,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대학경기리그 운영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
리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리그: 630경기 • 플레이오프: 9경기 • 챔피언십(1~32위): 31경기 • 프렌드십(33~70위): 35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라운드: 66경기 • 2라운드: 66경기 •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 결정전: 10~15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계리그: 28경기 • 춘계리그 챔피언 결정전: 3경기 • 추계리그: 28경기 • 추계리그 챔피언 결정전: 3경기
	1,300,000천 원	508,000천 원	472,000천 원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2. 대학경기리그제의 선진형 모델 개발

대학경기리그제는 시행 초기 단계로 올바른 추진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경기리그제의 선진형 모델을 개발하여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대학스포츠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대학운동부 운영 종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미국·일본·한국의 대학스포츠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경기리그제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경기리그제 직·간접 참여자의 실질적 의견과 경험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앞선 두 사업으로부터 확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대학경기리그제 참여 운동부에 적용할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과정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경기리그의 현장 핵심 책임자인 경기지도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중심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3. 대학스포츠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지금까지 대학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내 개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없었다. 우리나라 대학경기리그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진형 대학운동부를 보유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대학스포츠 전문가를 초청

하여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일본의 대학축구·농구·배구 경기 지도자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진형 대학스포츠 모델의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의 주 고객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고, 8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학생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대학생의 인터넷과 모바일 활용도가 높은 데 비해, 대학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은 단순한 경기 영상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 캠퍼스 내의 다양한 대학스포츠 문화 콘텐츠를 생성 및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생을 대학스포츠 현장으로 이끌어내 대학스포츠에 대한 대학생의 적극적인 소통 공간을 확대하여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이끌고, 공신력 있는 경기 영상 및 기록 등을 확보하여 대학스포츠 정상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5. 전략적 대학스포츠 홍보 사업

현재 언론기관에서 대학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보도는 매우 미흡하여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대학스포츠의 고유한 가치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협의회는 대학경기리그 운영 관련 홍보사업으로 대학경기리그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공식 포스터 및 가이드북 발간, 종목별 전담 스포츠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발굴 사업을 실시하며, 대학스포츠 활성화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스포츠 공식 홈페이지 고도화 개발 및 운영 활성화, ‘대학스포츠 블로그’ 운영 사업, 대학스포츠 취재 대학생 기자단 워크숍, 협의회 소식지 ‘대학스포츠’ 정기 발간 등 전략적 대학스포츠 홍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 제 발 표 2

NCAA의 사례를 통해 본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 코칭 프로그램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스포츠사회학

이 윤 영 박 사

1. 들어가며

지난 2010년 김연아 선수가 두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는 소식이 가십거리로 떠올랐다. 대학교 재학 중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F학점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며 학업에 불성실 할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휴학을 했어야 한다 라는 입장과, 당시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사정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양분되었다. 만약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다른 일반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또 김연아 선수가 한국의 대학생이 아니라 미국의 대학생이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골프의 미셸위 선수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미셸위는 정규 학생이 아니라 파트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여 학업과 골프를 병행하고 있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에 36학점을 최소 이수해야 하는 일반학생과는 달리 36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고 매년 3학기나 4학기(미국의 학제)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미셸위는 파트타임 학생으로 수업을 듣는다면 봄 학기를 건너뛰고 6개월 이상 골프에 전념할 수 있다. 미셸위는 정규학생으로 스탠포드에 다니면서 LPGA투어에 참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매년 2학기만 이수하는 방식으로 6년에 걸쳐 졸업할 계획을 세웠다. ‘농구천재’ 마이클조던 역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지리학과에 진학한 후 3학년을 마치고 프로로 전향했다. 그러나 2년간의 여름휴가를 대신하여 수업을 이수한 끝에 대학 졸업장을 손에 넣었다. 조던은 “농구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기상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운동선수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 학사 규정과 학업에 대한 선수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반학생과 운동선수를 양분화하여 이중적인 잣대를 두고 있는 제도적 차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이다. 특히 지도자는 선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타자이다. 필자는 지난 2005년 한 대학에서 실시한 ‘학생선수의 생활실태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당시 재학 중인 약 250여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때 특정 운동부 선수들의 출석율과 성적이 유독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해당 운동부의 지도자가 선수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표를 운동이 없는 오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 수업시간마다 담당 교수의 수업 참가 확인 사인을 받아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의식이 선수들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학년과 운동종목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점 1순위로 뽑은 바가 실력에 따른 선수 차별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자의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에 대한 차별, 성적에 대한 압력은 선수의 자긍심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그 외에도 지도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상에 대한 두려움 등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선수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면서 동시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도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성적지상주의의 의식이 팽배해 있고 학생운동선수로 대학운동선수를 바라보기 보다는 운동선수라고 규정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또한 학생선수의 진로, 상담, 미래 등 다방면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교의 지도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학생운동선수에 관한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미국대학스포츠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이하 NCAA)의 학생운동선수 관리시스템과 지도자 프로그램 및 지도자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학스포츠에 미치는 함의 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NCAA의 학생 선수 관리 시스템의 의의

인디애나 주 NCAA 본사 입구에는 NCAA를 표현하는 유명한 문구가 써있다. “NCAA에는 40만 명이 넘는 학생선수가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스포츠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프로를 향해 나갈 것이다(There are over 400,000 NCAA student-athletes, and most of us will go pro in something other than sports.)”. 다시 말해 대학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일부는 성공한 운동선수로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운동선수들은 결국 운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장과 그에 맞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수에게 학업과 운동을 동시에 요구하는 NCAA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NCAA에서 프로리그로 바로 가는 비율은 대부분의 종목이 1% 수준이고 야구종목만이 11.6%를 보이고 있다. 남자 농구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바로 NCAA에 진학하는 비율은 약 3.2%이고, 고등학교에서 NBL로 진출하는 경우는 0.03%, 그리고 NCAA에서 프로로 진출하는 비율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운동선수가 프로로 진출하는 비율은 대략 100명 중 1명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99명은 프로 선수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

<표1> 미국 운동선수들의 NCAA 대학 및 프로 진출 비율

	남자농구	여자농구	풋볼	야구	아이스하키	남자축구
고등학교→NCAA	3.2%	3.6%	6.1%	6.6%	10.7%	5.7%
NCAA→프로	1.2%	1.7%	1.7%	11.6%	1.3%	1.0%
고등학교→프로	0.03%	0.08%	0.08%	0.60%	0.1%	0.04%

출처: NCAA Research, 2011.9.27.

한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0년의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가맹단체 중 최근 3년간 운동선수들의 대학졸업 후 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야구 종목의 경우 전체 운동선수 745명 중 102명인 약 13.9%만이 취업을 했고 프로팀의 경우 대학 운동선수 약 10명 중 1명만이 입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미국이건 한국이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로로 진출하는 운동선수는 소수일 뿐이다. NCAA는 여기서 학업과 운동을 균형있게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찾았다. “좋은 선수는 시합에서 승리하지만,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은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NCAA의 Myles 전 회장의 연설에서 NCAA 학사 시스템의 의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지향하는 NCAA의 학업시스템은 무엇일까. 사실 NCAA의 학업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소개된 바 있다. 실제적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리그제 시행, 최저 학점제 시행 등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NCAA의 학사 행정을 한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참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선수들이 학업생활과 운동생활을 균형 있게 경험하면서도 학업과 운동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NCAA의 경우 단순히 대학 간 운동경기를 주관하는 역할을 넘어서 대학의 운동 경기가 대학교육의 일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NCAA의 시스템은 졸업 후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의 활약을 돕게 되고 궁극적으로 대학운동선수의 가치와 스포츠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훈련, 시합 일정은 학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되며 대학에서 운동선수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학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학생 운동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아끼지 않는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위해 개인과외 등을 통해 학업 향상을 돕고 선수 개개인의 학업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개인과외에 대한 선수들의 요구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고려대학교 체육특기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업을 위해서 튜터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둘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아마추어리즘의 강화 및 감시가 필요하다. 아마추어리즘은 선수선발, 재정, 훈련 시간, 대회 참가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학 스포츠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NCAA의 경기가 미국 전역을 흔들만큼 인기를 모으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선수로 이뤄진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순수함과 열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NFL, MBL 등 프로스포츠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유독 NCAA의 농구경기에 방송사들은 가장 비싼 중계료를 내고 있으며 매년 NCAA 소속 선수들에게 미국인들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 자본주의의 침범을 견고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프로리그를 물리치고 대학경기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하는 스포츠 정신과 학생으로서의 기본 권리인 학업성취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NCAA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아마추어리즘이란 학생운동선수와 프로 선수와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과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맨의 가치를 높이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의 확립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선수 선발, 부정 입학 등에도 개선점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3. NCAA의 코칭 프로그램 사례 분석

NCAA의 코칭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NCAA의 코치 중 선수선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코치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NCAA 코치 인증 프로그램 (Coaches Certification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NCAA 소속 코치들이 숙지해야할 선수선발 방법, 선수선발 진행 과정, 재정적인 지원, 선수 선발 시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스포츠 캠프, 클리닉의 운영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NCAA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CAA 소속 코치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디비전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하고 소정의 테스트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만 한다.

NCAA의 코칭 프로그램이 NCAA의 행정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면 NCAA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NCAA는 매년 별도의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NCAA의 핵심 지향점 중 하나는 학생선수, 코치, 스포츠 행정가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평한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성, 인종, 계급, 교육적 배경, 장애정도, 소득, 경력 등에 상관없이 NCAA 소속의 스포츠인이라면 평등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NCAA는 스포츠의 보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적극적 지원 정책을 통해 최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NCAA의 디비전1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남녀 각각 최소 7개의 스포츠 종목이 있어야 하며 이 중 2개 종목은 팀 스포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행정가,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코치 교육 과정의 하나인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Achieving Coaching Excellence, 이하 ACE)' 프로그램과 여성 코치 아카데미(Women

Coach Academy, 이하 WCA)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CE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부터 NCAA의 학생선수(Student-Athletes Affairs)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너리티 그룹인 흑인 코치와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대학 내 여자농구 감독의 소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계획했으나 현재는 종목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남자 코치, 코치를 희망하는 예비코치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원자는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과 현재 대학에서 코치나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가능하고, 남자 프로그램의 경우 5년 이상 대학 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하며 여자 프로그램의 경우 3년 이상 대학 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한다. ACE 프로그램의 경우 4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지며 2010년의 경우 90명이 신청하고 30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은 NCAA의 감독, 대학의 스포츠 행정가 등의 강연을 비롯하여 실제적으로 지도자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져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리더십, 의사소통, 대학 내에서 행정가들과의 관계, 선수들과의 관계, 기사를 대하는 방법,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즉 ACE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WCA의 경우 ACE와 목적은 유사한데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적 트레이닝, 대화훈련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코치로서의 업무를 이수하고 이를 통해 여성 코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각자 자신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대학과 팀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여성 스포츠 지도자의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다. WCA는 2002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종목과 디비전에 상관없이 현재 NCAA 소속의 여성 지도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WCA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철학과 기초(Philosophy and Fundamentals), 경영

기술(Management Skills), 의사소통전략(Communication Strategies),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등이다. 철학과 기초 프로그램의 경우 코치의 기초, 코칭 방법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되며 의사소통 전략의 경우 의사소통 스킬, 대중 연설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술개발로써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 의사결정 경영전략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코치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 코치가 전문적인 영역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성공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은 동료이자 선배로서 모든 영역에서 선수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2> NCAA여성코치아카데미의 교육 과정

철학 및 기초	경영기술
· 타이틀 9 법과 성평등	· 경영변화
· 여성 스포츠의 역사 및 문화	· 의사결정
· 코칭의 철학	· 마케팅원칙
· 코칭의 기초	· 경영방법
· 코칭 방법과 전략 배우기	· 코치의 법적문제
의사소통전략	진로개발
· 의사소통 기술	
· 다양성	· 인터뷰
· 공공연설	

출처: NCAA Coaches academy

지금까지 살펴본 NCAA의 코칭프로그램과 ACE, WCA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대학의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한국의 대학스포츠 지도자 프로그램을 위한 두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스포츠 지도자들이 선수 선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숙

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NCAA의 스카우트 규정 중 선수와의 접촉 횟수를 어겼던 인디애나 대학교의 농구코치는 코치자격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은 모두 장학금의 혜택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포스트 시즌 출전 금지와 더불어 3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서 농구부의 발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런 면에서 지난 8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한 불법 스카우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선수 선발 규정에 관한 합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교육이 사전에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을 정착시키고 학생운동선수의 순수함을 고취시키며 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CE, WCA프로그램이 미국의 마이너리티 코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마이너리티를 위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코치의 역량 강화, 전문성 확보, 의사소통 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기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각 종목의 협회에서 선진 사례를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기술 외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선수들과 소통해야 하는 만큼 대학 지도자들을 위한 대화 방법, 지도자의 철학,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나오면서

지금까지 NCAA의 학사행정과 코칭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실 지금의 NCAA는 학생선수들을 비롯하여 대학스포츠 주최들을 뒷받침하는 NCAA의 시스

템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본다. NCAA의 학사행정, 교육 등을 비롯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최상의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즉 운동선수이기에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는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사회적 경험을 함께 보장하면서도 운동선수와 학생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함께 근무했던 NCAA 인턴은 디비전1의 농구선수였고 NBL에서도 선수로 뛴 만큼 실력이 뛰어났지만 회계학을 공부하고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물었더니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나는 농구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안하면 농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농구를 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했다. 그때는 디비전1의 학생선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NCAA의 제재 시스템과 튜터제도 등이 지금 회계사로서의 나를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NCAA의 정착과 성공은 바로 학교의 끊임없는 협조와 NCAA의 오랜 노력을 통해 강화되고 유지해 온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다고 본다.

주 제 발 표 3

대학경기리그(축구 · 농구 · 배구) 참여 학생선수 학업성적 진단분석

**국민대학교 체육교육과
신 승 호 교 수**

I. 서론

국내 엘리트스포츠는 학교스포츠가 중심이 되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 초·중·고·대학의 약 1,800여교에서 이른바 엘리트스포츠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중 200여 대학운동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특기생수가 2008년 기준으로 14,142명이나 된다(이학래, 2009). 그리고 여기에서 배출된 국가대표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에서 수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최근 개최되었던 '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학선수 출신이 획득한 메달이 총 31개 중 13개(41.9%)를 차지할 정도이다(권민혁 2009). 그러나 최근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체육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어 왔던 대학운동부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한주, 이여미, 백일영, 박형란, 구미순, 2010).

많은 체육인들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권 침해, 체벌 및 폭력,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지도자 일탈, 각 종 부정 등이 대학운동부 및 학생선수들 관련 문제들로 지적되고 있다(이창섭, 2009).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 등과 같은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금메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권민혁, 2009). 특히 대학운동부는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학원운동부 개선 요구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운동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 엘리트 학생선수들의 최대 목표라 할 수 있는 대학입학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대학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제도가 실시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체육특기자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이한주 등, 2010). 권민혁(2009)은 후진적 선수 선발 시스템, 학업 관리 소홀, 인권 보호 미흡, 지도자 관리 시스템 미흡, 열악한 재정 등을 대학운동부의 문제

점들로 지적하였다. 대학운동부의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업수행능력부재가 가장 큰 이슈로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의 인격적 성장과 진로 그리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이한주 등, 2010). 강구민(2010), 김기형, 박중길(2009), 김동현, 윤양진(2010), 송용관, 엄혁주, 심미진(2010), 이학준(2009) 등은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들의 학업실태 및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실의 벽 앞에 주장의 당위성만 있을 뿐,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많은 보고서와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으나 대학운동부의 학습실태에 관련한 실제적인 자료 또는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 관련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대학경기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는 대학선수들의 학습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경기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들의 실질적인 학업성적증명서를 바탕으로 학업성적을 진단·분석하는 것은 신뢰성과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학경기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축구, 농구, 배구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을 진단 분석하여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들의 학업실태에 관한 다각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자료는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을 마련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성과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2011년 현재 대학경기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축구, 농구, 배구 남자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Census) 하였다. 전수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표본의 대표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구, 농구, 배구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56개 학교의 2, 3, 4학년 학생운동선수 1,431명의 학업성적증명서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회의 협조를 통해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는 형식으로 표집을 하였다. 1학년 학생운동선수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연구수행 시점에서 학업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중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20명(1.4%)의 학업성적증명서를 제외한 1,411명(98.6%)의 학업성적증명서를 분석대상으로 최종 활용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대학리그 참여 학생선수 학업성적증명서를 표집하기 위하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을 접수한 각 대학의 체육행정부서는 축구, 농구, 배구리그 참여하고 있는 학생선수에게 본인의 성적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 취합한 후 학생선수 소속 학과의 교과과정 및 졸업이수 조건을 정리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회에 제출된 학업성적증명서는 학교별, 지역별, 종목별, 학년별, 설립유형별, 설립주체별, 학생선수 규모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회 회원 여부별 등으로 구분하여 학업성적 현황을 분

석하였다. 모든 평점 평균은 4.5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4.3점 만점이 기준인 대학의 학업성정증명서는 4.5점 만점으로 수치를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dows 14.0 version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체 학생선수 학업 성적

1) 전체 학생선수 평점(전공, 교양, 전체) 평균

<표 1>은 전체 학생선수의 평점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평점 4.5점 만점에 전공평점의 평균은 2.863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449점, 전체 평점 평균은 2.671점으로 나타났다.

표 1. 전체 학생선수 평점 평균

	평점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전공 평점	1,395	2.863	.569
	교양 평점	1,400	2.449	.626
	전체 평점	1,410	2.671	.535

2) 전체 학생선수 F학점(전공, 교양, 전체) 개수 평균

<표 2>는 전체 학생선수 F학점 개수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F학점 개수 평균이 전공(M=.254)에 비해 교양(M=.51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F학점 개수 평균은 .769개로 나타났다.

표 2. 전체 학생선수 F학점 개수 평균

	F학점 개수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전공 F학점 개수	1,411	.254	.791
	교양 F학점 개수	1,411	.515	1.334
	전체 F학점 개수	1,411	.769	1.751

2. 종목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표 3>은 종목별 학생선수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축구에서 전공 평점의 평균은 2.879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454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680점으로 나타났다. 농구에서는 전공 평점의 평균이 2.808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433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651점으로 나타났으며, 배구에서는 전공 평점의 평균은 2.756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416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599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공 평점의 평균이 교양 평점의 평균보다 높으며, 축구(M=2.680), 농구(M=2.651), 배구(M=2.599)의 순으로 평점의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종목별 학생선수 평점 평균

	평점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축구	전공 평점	1,170	2.879	.565
	교양 평점	1,175	2.454	.620
	전체 평점	1,186	2.680	.534
농구	전공 평점	125	2.808	.624
	교양 평점	125	2.433	.755
	전체 평점	124	2.651	.605
배구	전공 평점	100	2.756	.525
	교양 평점	100	2.416	.510
	전체 평점	100	2.599	.442

3. 학년별 학생선수 학업 성적

<표 4>는 학년별 학생선수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전공 평점 평균은 2학년(M=2.889), 4학년(M=2.865), 3학년(M=2.826)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양 평점 평균은 2학년(M=2.510), 4학년(M=2.406), 3학년(M=2.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점 평균은 4학년(M=2.698), 2학년(M=2.683), 3학년(M=2.6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학년별 학생선수 평점 평균

	평점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2학년	전공 평점	618	2.889	.653
	교양 평점	629	2.510	.726
	전체 평점	634	2.683	.617
3학년	전공 평점	441	2.826	.505
	교양 평점	441	2.395	.517
	전체 평점	440	2.635	.468
4학년	전공 평점	336	2.865	.471
	교양 평점	330	2.406	.541
	전체 평점	336	2.698	.441

4. 종목에 따른 학년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표 5>는 종목에 따른 학년별 학생선수의 전공, 교양, 전체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축구는 4학년(M=2.702), 2학년(M=2.693), 3학년(M=2.644) 순으로 평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농구는 4학년(M=2.683), 2학년(M=2.637), 3학년(M=2.627) 순으로 평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구는 4학년(M=2.681), 2학년(M=2.601), 3학년(M=2.514) 순으로 평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종목에 따른 학년별 평점 평균

	학년	평균 표준편차	종 목		
			축구	농구	배구
전공 평점	2학년	평균	2.904	2.834	2.750
		표준편차	.654	.711	.555
	3학년	평균	2.844	2.800	2.656
		표준편차	.479	.629	.583
	4학년	평균	2.876	2.784	2.862
		표준편차	.474	.502	.411
교양 평점	2학년	평균	2.524	2.408	2.438
		표준편차	.734	.810	.455
	3학년	평균	2.390	2.417	2.428
		표준편차	.485	.727	.531
	4학년	평균	2.399	2.487	2.377
		표준편차	.509	.736	.563
전체 평점	2학년	평균	2.693	2.637	2.601
		표준편차	.622	.694	.431
	3학년	평균	2.644	2.627	2.514
		표준편차	.446	.604	.499
	4학년	평균	2.702	2.683	2.681
		표준편차	.442	.487	.388

5. 설립주체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표 6>은 설립주체별 학생선수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국·공립대학 전공 평점의 평균은 2.960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221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621점으로 나타났고, 사립대학 전공 평점의 평균은 2.861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455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673점으로 나타났다. 즉, 사립대학 평점(M=2.673)이 국·공립대학 평점(M=2.62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설립주체별 학생선수 평점 평균

	평점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국·공립대학	전공 평점	36	2.960	.566
	교양 평점	36	2.221	.311
	전체 평점	36	2.621	.378
사립대학	전공 평점	1,359	2.861	.569
	교양 평점	1,364	2.455	.631
	전체 평점	1,374	2.673	.539

6. 지역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표 7>은 지역별 학생선수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 전공 평점의 평균은 2.740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390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562점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 전공 평점의 평균의 2.930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480점, 전체 평점은 2.733점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도시 소재 대학의 평점(M=2.733)이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의 평점(M=2.562)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지역별 학생선수 평점 평균

	평점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	전공 평점	495	2.740	.611
	교양 평점	502	2.390	.583
	전체 평점	506	2.562	.523
중·소도시 소재 대학	전공 평점	900	2.930	.532
	교양 평점	898	2.480	.647
	전체 평점	904	2.733	.532

7. 지역에 따른 종목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표 8>은 지역에 따른 종목별 학생선수의 전공, 교양, 전체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축구는 중·소도시 소재 대학 평점(M=2.748)이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 평점(M=2.5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구는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 평점(M=2.678)이 중·소도시 소재 대학 평점(M=2.61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배구는 중·소도시 소재 대학 평점(M=2.668)이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 평점(M=2.36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 지역에 따른 종목별 평점 평균

		평균	종 목		
지역		표준편차	축구	농구	배구
전공 평점	서울 및 광역시	평균	2.754	2.749	2.473
		표준편차	.598	.714	.480
	중·소도시	평균	2.946	2.870	2.840
		표준편차	.535	.511	.511
교양 평점	서울 및 광역시	평균	2.373	2.596	2.473
		표준편차	.533	.859	.480
	중·소도시	평균	2.498	2.262	2.491
		표준편차	.660	.588	.533
전체 평점	서울 및 광역시	평균	2.555	2.678	2.365
		표준편차	.483	.745	.408
	중·소도시	평균	2.748	2.613	2.668
		표준편차	.549	.414	.429

8. 학생선수 규모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표 9>는 학생선수 규모별 학생선수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20명 이하 규모의 대학에서 전공 평점의 평균은 2.910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580점, 전체평점 평균은 2.769점으로 나타났고, 21~30명 규

모의 대학에서 전공 평점의 평균은 2.860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480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674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31명 이상 규모의 대학에서 전공 평점의 평균은 2.830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300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588점으로 나타났다. 즉, 20명 이하 규모의 대학(M=2.769), 21~30명 규모의 대학(M=2.674), 31명 이상 규모의 대학(M=2.588) 순으로 평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학생선수 규모별 학생선수 평점 평균

	평점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20명 이하 규모의 대학	전공 평점	361	2.910	.682
	교양 평점	362	2.580	.803
	전체 평점	365	2.769	.684
21~30명 규모의 대학	전공 평점	602	2.860	.519
	교양 평점	603	2.480	.563
	전체 평점	603	2.674	.454
31명 이상 규모의 대학	전공 평점	432	2.830	.528
	교양 평점	435	2.300	.501
	전체 평점	442	2.588	.482

9. 설립유형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표 10>은 설립유형별 학생선수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4년제 대학 전공 평점의 평균은 2.827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399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629점으로 나타났고, 2년제 대학 전공 평점의 평균은 3.895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3.855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3.877점으로 나타났다. 즉, 2년제 대학 평점(M=3.877)이 4년제 대학 평점(M=2.62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설립유형별 학생선수 평점 평균

	평점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4년제대학	전공 평점	1,347	2.827	.540
	교양 평점	1,352	2.399	.570
	전체 평점	1,362	2.629	.489
2년제대학	전공 평점	48	3.895	.346
	교양 평점	48	3.855	.491
	전체 평점	48	3.877	.337

10.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원여부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표 11>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원여부별 학생선수 평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회원대학 전공 평점의 평균은 2.823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403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2.623점으로 나타났고, 비회원대학 전공 평점의 평균은 3.196점, 교양 평점의 평균은 2.853점, 전체 평점의 평균은 3.078점으로 나타났다. 즉, 비회원대학 평점(M=3.078)이 회원대학 평점(M=2.62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원여부별 학생선수 평점 평균

	평점	학생선수 수	평균	표준편차
회원대학	전공 평점	1,243	2.823	.560
	교양 평점	1,256	2.403	.603
	전체 평점	1,258	2.623	.511
비회원대학	전공 평점	152	3.196	.533
	교양 평점	144	2.853	.679
	전체 평점	152	3.078	.556

IV.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학경기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축구, 농구, 배구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을 진단 분석하여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들의 학업실태에 관한 다각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성과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향후 대학생선수의 최저 학력기준을 마련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1. 요약

첫째, 전반적으로 학생선수의 평점($M=2.671$)은 비교적 낮았으며, 전공과목($M=2.863$)보다 교양과목($M=2.449$)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둘째, F학점 빈도 백분율이 전공(15.5%)보다 교양(23.2%)에서 많이 나왔으며, 조사된 56개 대학 중 24개 대학에서 학생선수의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모두 F학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목별 학생선수 평점은 축구($M=2.680$), 농구($M=2.651$), 배구($M=2.59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년별 학생선수의 평점은 4학년($M=2.698$), 2학년($M=2.683$), 3학년($M=2.63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종목에 따른 학년별 학생선수의 평점은 축구, 농구, 배구 모두 4학년, 2학년, 3학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설립주체별 학생선수 평점은 사립대학($M=2.673$)이 국·공립대학($M=2.6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지역별 학생선수 평점은 중·소도시 소재 대학($M=2.733$)이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M=2.5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지역에 따른 종목별 평점은 중·소도시 소재 대학의 축구(M=2.748)와 배구(M=2.668)가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의 축구(M=2.555)와 배구(M=2.365)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의 농구(M=2.678)가 중·소도시 소재 대학의 농구(M=2.613)보다 높았다.

아홉째, 학생선수규모별 평점은 20명 이하 규모의 대학(M=2.769), 21~30명 규모의 대학(M=2.674), 31명 이상 규모의 대학(M=2.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열번째, 비록 비교된 사례수가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2년제 대학(M=3.877)의 학생선수가 4년제 대학(M=2.629)의 학생선수보다 상당히 높은 평점을 보였으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비회원대학(M=3.078)의 학생선수가 회원대학(M=2.623)의 학생선수보다 매우 높은 평점을 보였다.

2. 시사점

첫째, 전반적으로 학생선수의 교양과목 평점 평균이 전공과목보다 낮게 나온 것은 체육특기자제도가 정착되면서 체육학과 계열로만 특기자가 진학할 수 있어 체육전공 관련 과목에 대한 학생선수의 적응력이 교양과목보다는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교양과목은 일반학생들과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과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학생선수들의 학업능력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전공과목 교수들에 비해 교양과목 담당 교수들은 학생선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학생선수의 학교생활, 대회출전, 운동시간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대회출전으로 인한 출결관련 등

에 대한 배려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조사된 56개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24개 대학의 학생선수들 학업성적표에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에 F학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특히 주목 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F학점이 학업성적표에 나타난 학교들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F학점이 전혀 없는 학교들의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사관리제도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 대학스포츠의 법적, 제도적인 규정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사항들(예: 체육관련 학과가 아닌 타 학과에 재학 중인 선수들, 일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수업을 전혀 받지 않거나, 반대로 전공수업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학생선수들, 편입생 관리 등)이 일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향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학교별 평점 평균이 최고 4.115점에서 최하 2.105점 까지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학생선수들의 학습능력의 차이가 많이 있기 보다는 학생선수를 관리하는 학교들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중·소도시 소재 대학의 학생선수들이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의 학생선수들보다 평점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소도시 소재 대학들이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대학들보다 학생선수들의 학점을 높이는데 비교적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이, 한국대학스

포츠총장협의회 회원대학보다는 비회원대학의 학생운동선수들이 학점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대학선수들의 학력 증진은 선수뿐만 아니라, 특히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운동선수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로서의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부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운동선수의 은퇴 후 진로가 또 하나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부하는 운동선수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 모든 대학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은 선상에서 함께 실행이 되어야 한다.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정하게 관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둔 나머지 학생선수들에게 ‘인정학점’ 등 불공정한 룰을 적용시킨다면 다른 대학의 학생선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육성은 요원해지게 된다.

따라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들이 같은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룰을 만들어 이를 공정하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관리감독의 역할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구민(2010).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스포츠와 법**, 13(4), 101-120.
- 권민혁(2009). **대학운동부 운영 체계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 대학스포츠선진화방안세미나발표논문, 50-74.
- 김기형, 박중길(2009). 대학 운동부 선수의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적용과 효과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1), 87-107.
- 김동현, 윤양진(2010).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스포츠와 법**, 13(4), 57-81.
- 송용관, 엄혁주, 심미진(2010). 운동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에 대한 이해: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89-109.
- 이창섭(2009). **한국형 NCAA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 한국체육학회 대학스포츠선진화방안세미나 발표논문, 135-176.
- 이학래(2009).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한국체육학회 대학스포츠선진방안 세미나 발표논문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과제. 올림픽파크텔 서울홀.
- 이학준(200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근거와 대안. **한국체육학회지**, 48(5), 35-44.
- 이한주, 이영미, 백일영, 박형란, 구미순(2010). 대학교 운동선수들 학업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0, 41-55.